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⑩ 전쟁과 기후위기



▶한줄 요약
전쟁은 사람의 목숨과 사회경제를 모두 파괴한다. 이와 함께 많은 동식물들도 죽거나 멸종되며, 자연도 파괴된다. 군수사업들도 기후 위기의 주범이다.

‘STOP THE WAR’…지구 살리는 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4월 12일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스님들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까지 2.1km를 오체투지했다.

20세기 무력충돌 20% 기후변화 원인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북한의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물어보자 그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트릴 호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을 들은 북한은 “핵 보유국가에 ‘선재타격’ 운운하는 것은 천치바보”라고 비난하며 “선제타격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한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다 최근 11월 3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한 · 미연합공군훈련에 반발해 전날인 2일에 4차례에 걸쳐 동 · 서해로 미사일 25발을 발사했고,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최근까지 남한은 북한과 미국 등을 잘 조율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남한의 24개의 핵발전소만 공격해도 가히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최근 우크라니아와 러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의 원자력발전소를 러시아군이 포격하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위험을 보도되기도 했다.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38만 명이 사망하고 1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이 내전으로 비화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2010년 여름 러시아를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줄자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그로인해 러시아 밀을 주로 수입하는 시리아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폭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오랜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과 ‘아랍의 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반정부 봉기로 커졌고, 내전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자 각국에서 난민 수용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 미국 스텐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연구팀 캐서린 매치는 “20세기 전쟁과 무력충돌의 20%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극한기후로 인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21세기 들어 그 영향은 점점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채굴로 자원이 고갈되고, 화석연료의 소비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 해일 등 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국가간 갈등과 군사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파괴한다

필자는 23년간의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러 2001년 카불공항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전쟁영화의 거대한 한 장면 같은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공항의 창문은 온통 깨어지거나 없고, 2층 계단과 난간이 부서져 내부에 아무 시설도 없었다. 공항에서 나오자 오른쪽에는 약 20~30여대의 부서진 비행기 잔해들이 700m가량 펼쳐져있었다. 시내로 들어가면 도로는 온통 포탄 자국으로 움푹 패어있고 차량이 지체되면 언제나 나타나는 꼬마들과 때에 찌든 부루카를 입고 구걸하는 여성들이 달려들었다. 내전 당시 살벌한 격전의 흔적이 흉물스럽게 서있는 모습은 카불 시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간 전국의 도로양쪽에 매설된 지뢰로 군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들 할 것 없이 불구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산과 들에는 전쟁과정에 시야확보를 이유로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있었다. 사회 행정체계나 교육시스템은 붕괴됐고, 시내에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들판을 뒹구는 포탄들과 탱크 잔해들이 널부러져 있다. 이런 상황에 환경오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기,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 화학무기 사용과 독가스 살포, 등으로 나무와 초목도 파괴됐지만 수많은 야생생물도 모두 죽거나 멸종됐다.

전쟁, 가장 심각한 자연파괴

전쟁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악화된다. 평등한 질서보다는 군사적 계급적 위계관계로 일사불란하게 재편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 어린이의 약자들의 인권에 심대한

인간, 사회 파괴하는 전쟁
동식물, 자연도 모두 절멸
韓기후 예산, 국방비 1/4
군비 증강, 기후 위기 원인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양산한다. 또한 전쟁은 평상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도 일순간 서로 살해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시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자연과 뭇 생명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괴하며 죽이고, 강력한 무기의 파괴력으로 풍부한 자연과 주거지역은 초토화돼 수백년 간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설, 건물, 집, 공장 등이 일순간 사라지게 한다.

또한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고통, 보이지 않는 적개심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분노를 끊임없이 재생산 해낸다. 오로지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일순간 그 사회를 집어삼킨다. 3년간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은 이후 60년 넘게 상호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왔다. 전쟁은 고향을 버리고 난민으로 유랑, 이주와 추방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전쟁은 긴급한 승리에 몰두하게 되어 인간과 자연, 다른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과거 모든 역사적 사회적 성과를 파괴하고, 현재를 파괴하며 희망의 미래를 파괴한다.

군사주의, 기후위기 원인이자 결과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1000억 달러(약 2630조 원)이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파리협정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도 거의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이다. 전 세계에 전쟁준비와 핵무기 현대화와 군사기지를 만들고 군사훈련에 지출하는 그 액수의 돈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인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54조 6000억 원으로 GDP에서 2.8%이며, 세계 10위의 막강한 군사대국이다. 이 군사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조 원씩 늘어났다. 이에 비해 외교통일 예산은 이 국방예산의 1/10에 불과한 5.5조 원이다. 또한 2022년의 탄소중립예산은 불과 12조 원으로 국방비의 1/4도 미치지 못하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1995년 교토의정서에도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빠져있고 2016년 파리기후협정에도 빠져있다.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900만 미터톤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세계최대의 석유소비자이며, 세계 55위의 온실가스 배출당사자로 평가되고 있다. 군용 차량, 탱크, 전투기, 수송기 등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디젤소비가 많아 승용차 보다 5~50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군사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하는 이유이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군수품을 수출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것을 좋아해야할까? 군수산업은 죽음의 산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군수판매상들은 전쟁이 날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기업들은 지구상에 평화보다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평화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엄청난 희생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격명령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건은 21세기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면전이다. 개전 직후에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못 버티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의지로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교적 해결책보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며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의 국민들은 죽거나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당연히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된 적이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미국의 트럼프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급격하게 평화적 분위기로 되돌린 사례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비공식적인 대리전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의한 고의적 원전 사고 가능성,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전쟁과 군비경쟁은 결국 진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물론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 등에 써야 할 자원과 예산을 군사비로 낭비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무력충돌, 안보 불안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우리는 군수품 수출보다 남북한의 종전선언을 유도해 평화를 만드는 일에 투자해야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은 절대 군사적 대결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처럼, 시리아에서 10년 넘게 진행되는 내전처럼, 설령 이긴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도 희생되지만 자연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루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마이크 하나만 바꾸셔도 법당 소리가
놀랍게 달라지는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소개법 : 전화 하시면 귀 사찰 부근을 지날 때 겸사겸사 들러서 마이크소리 비교 테스트!
마이크소리 테스트 비용 : 한잔
3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및 마이크만 바꿈도 2천여 사찰!
▣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시설상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각종 “재” 전문 무선시스템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